

현대패션에 표현된 발레리나 룩의 미적 특성

- 1990년 이후 디자인을 중심으로 -

김 선 영

순천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Ballerina Look Presented in Modern Fashion

- Focused on the Design Since 1990 -

Sun-Young Kim

Full-time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2004. 4. 8 투고)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template both the formation an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ballerina look represented in modern fashion by analyzing a ballet costum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the ballerina look is formed by ballet costume itself with being stick to or exposing human body line, or by casual dress mixed with a ballet costume: the materials consist of both the major materials for a ballet costume such as silk, chiffon, tulle, lace, or organza, and the usual materials for casual dress: a variety of color such as transparent, pastel etc. is also used with typically used colors like white and black: decoration is basically composed of ruffle, drape, gather and the distinctive accessory like toe shoes, ribbon tape, ankle warmer is used to show a feature of a ballet costume

Thes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ballerina look presented in modern fashion implies illusory, pure, and hybridity traits. First, illusion of the ballerina look not only implicitly expresses a womans wish to experience a ballerina's fantastic world, but also recreates woman herself into a ballerina on a stage. Second, purity of the ballerina look makes design look feminine and smooth, which is expressed with girlish taste through materials and colors. Third, hybridity of the ballerina look suggests a standard of a new trend, which is active style, by adding comfortableness and flexibleness to romantic femininity.

Key words : ballerina look(발레리나 룩), illusion(환상성), purity(순수성), hybridity(혼성성)

I. 서론

인류의 시작과 함께 패션은 그 사회의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가치척도와 문화 현상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오늘날 현대사회는 다양화된 생활방식과 개성적인 개인들로 이루어진 초 정보화 사회로 변모되고 있고 패션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다 새로움이라는 코드를 찾기 위하여 이미지의 새로운 해석과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양식을 통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어 개인의 취향이나 스타일이 우선 시 되는 인간중심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생활전반의 패션화와 함께 주 5일 근무제의 도입, 여가생활의 확대, 사교육의 확대 등으로 공연문화의 활성이 두드러지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패션에서의 로맨틱 무드라는 트렌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무용은 움직임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리듬에 맞추어 자의적으로 조화롭게 행동하는 동작으로¹⁾, 무용의상은 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 음악극 같은 공연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계획되고 마련되는 무대의상의 한 부분이다.²⁾ 발레의상은 그 작품의 예술성, 성격, 내용, 주제를 표현할 뿐 아니라 울동을 보호하고, 관객에게 시각적 만족감을 전달하며, 그 표현 결과가 무대 공간의 효과를 증진시키면서 무대 위 공간 속에 제반된 다른 요소인 무대장치, 조명, 음악 등과 어우러져 안무가의 의도와 동작에 의한 내적인 구도에서 비롯되어 하나의 주제를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³⁾

특히 발레는 인간이 주체가 되는 예술일 뿐만 아니라 보다 차원 높은 상상의 경지로 인도하는 표현 예술로서 그 탄생에서부터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왔다. 오늘날 디지털시대의 현대인들이 낭만적인 미를 추구하며 발레리나 스커트, 발레 슈즈 등 발레의상의 형태나 소재, 아이템 등을 적용시킨 로맨틱 무드의 발레리나 룩과 같은 트렌드가 등장하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자연스럽고 순수한 감정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무용의상과 관련한 선행연구⁴⁾로는 발레의 역사나 발레사조에 따른 발레의상의 변천에 관한 연구 또는 현대무용이나 창작 한국 무용의상에 관한 연구로 무대 공연을 위한 무용의상의 연구에 국한되어 있어

발레의상과 현대 패션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발레공연을 위한 의상이 아닌 발레의상을 통해 현대패션에 표현된 발레리나 룩의 조형성과 미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무대의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더 나아가 현대패션의 다양한 스타일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 범위는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이 시기는 문화 전반에 있어 다양성과 가변성이 더욱 폭 넓게 수용되어 각 영역간의 상호 교류 현상이 보다 더 확산되었고, 특히 패션에 있어 발레리나를 주제로 여러 디자이너들이 컬렉션을 선보여 다양한 트렌드의 흐름 속에서 발레리나 룩의 특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은 문헌고찰에 의한 방법으로 선행연구와 관련서적들을 참고하였으며, Vogue, Bazaar, Collections 등 각종 패션잡지를 중심으로 고찰, 분석하였다.

II. 발레의상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1. 발레의 역사

다양한 무용의 장르 중 발레는 약 15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 어원은 '발라레(Ballare)'로 '춤추다'는 의미이다.⁵⁾

초창기 발레는 왕족이나 귀족들의 여흥용이나 사교춤과 같은 오락무용의 형태로 발생하였으며, 이탈리아 메디치(Medici) 가문의 카트린느(Catherine de Medici)가 프랑스 왕 앙리(Henri) 2세와 결혼하여 프랑스에 전파된 이후 궁중 내에서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정착시켰고 극장예술의 형태로 토대를 갖추면서 발전하게 되었다.⁶⁾

현대 발레의 기원은 1581년 발표된 <황후의 발레 코믹(Ballet Comique de La Reine)>으로 춤, 음악, 가요, 대사 등을 하나로 조합하여⁷⁾ 광범위한 안무적 요소를 창조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의 발레가 시작되었고, 발레의 중심이 기존 이태리에서 프랑스로 바뀌면서 점점 양식화되고 세련되어졌으며 발레의 품격 또한 귀족적이 되고 발레 스텝은 프랑스 용

어를 지니게 되었다.⁸⁾

프랑스 궁정 발레는 루이 14세 치하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1669년 오늘날 파리 오페라(Paris Opéra)로 존속하는 황실 음악학교(Académie Royale de Musique)가 설립되어 파리오페라 발레단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발레단으로 유지되었다.⁹⁾ 이 파리오페라의 개막과 함께 귀족 중심이 아닌 전문적인 무용수들이 출현함에 따라 발레는 예술로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는데, 17세기 발레공연의 형식은 오늘날의 형식이 아닌 연극이나 오페라와 결합하여 '연극 속의 발레' 또는 '오페라 속의 발레' 형태로 발전하였다.¹⁰⁾

18세기 오페라 발레는 궁정에서 극장으로 발레의 무대가 바뀌고 무용 전문학교 등이 활성화되면서 전문 무용수들 또한 남성에서 여성 무용수로 발레의 주역이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18세기에 개발된 발레의 형식은 행위 발레로 극적인 통일성과 간결성을 특징으로 하여 이 행위발레의 대중성은 무용이 예술적인 자치권을 갖도록 하였다.¹¹⁾

이전의 발레 형식과는 다르게 연극이나 오페라에서 따로 떨어져 나온 최초의 무연극 발레는 1760년 장 조르쥬 노베르(Jean-Georges Noverre)가 발표한 무용미학에 관한 논문인 <무용과 발레에 관한 편지(Letters on Dancing and Ballets)>에서 정립되었다.¹²⁾ 이 논문에서 그는 '발레가 예술작품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제작의 모든 국면은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굽이 높은 신발과 부풀려진 스커트 같이 춤추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없어야 한다'¹³⁾고 하였다.

이 무연극 발레는 점차 오늘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면서 발레의 대중화를 이끈 낭만주의 발레로 발전하였다. 1832년 발표된 <라 실피드(La Sylphide)>는 안무가인 필리포 탈리오니(Filippo Taglioni)가 자신의 딸인 마리 탈리오니(Marie Taglioni)를 위해 안무한 작품으로 현실과 환상이라는 낭만주의의 두 요소를 결합하여¹⁴⁾ 안무에 있어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그녀가 착용한 의상은 오늘날 발레의상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낭만주의 발레는 1841년 <지젤(Giselle)>이 파리오페라단에서 초연 되면서 절정을 이루었으나¹⁵⁾, 19세기 중반 이후 남자가 발레에 있어서 보조적인 위치로 역할이 축소되어 낭만 발레의 한계를 드러내었

다.¹⁶⁾ 그리고 19세기 말 까지 서유럽의 발레는 극히 저하되어 대중들의 관심을 잃기 시작하여 유럽의 뛰어난 무용가들은 러시아로 건너와 활동하게 되며, 1890년대 발레의 중심이 프랑스에서 러시아로 옮겨졌다.

1869년 마린스키 극장의 안무가인 마리우스 프티파(Marius Petipa)는 2인무의 형식을 최초로 고안하여 발레의 형식과 규칙을 만들고, 무용가들이 서는 자리를 치밀한 계산에 따라 관객들이 보기 좋은 구도를 만드는 등 고전 발레의 형식을 수립하였다.¹⁷⁾

이후 20세기 발레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세르게이 디아길레프(Serge Diaghilev)에 의한 발레 뤼스(ballet russes)는 고전발레를 현대예술의 한 형태로 변화시켰으며¹⁸⁾, 해체 이후에도 그 후예들은 세계 각지로 나가 그 전통을 오늘에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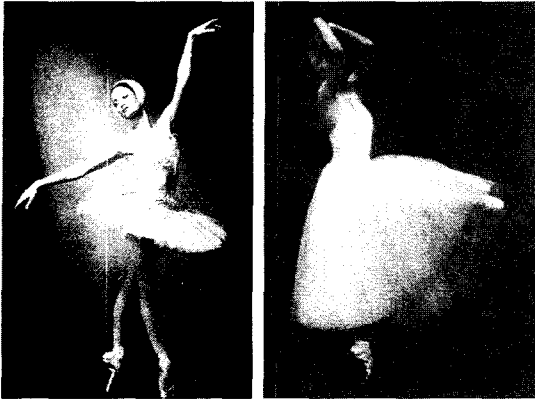
2. 발레의상과 슈즈의 종류

무용수의 제 2의 피부라 할 수 있는 발레의상은 동작의 특성상 가볍고 편안하며 착용감이 우수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무용수의 동작 시 의상이 신체의 일부분이 되어 각 동작의 효과를 최대한 부각시켜야 한다.

발레의상을 대표하는 것은 튜튀(tutu)로 안무법에 따라 로맨틱 튜튀(Romantic tutu)와 클래식 튜튀(Classic tutu)의 두 가지 기본적인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모두 구성 형식은 뷔스티에(Bustier)와 스커트(Skirt)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1>

튜튀는 발레리나가 착용하는 챙이 넓은 종 모양의 스커트로 1832년 마리 탈리오니(Marie Taglioni)가 파리에서 <라 실피드(La Sylphide)>를 공연 할 때 처음 선보인 이후¹⁹⁾ 현대에 이르기까지 착용되어 오고 있으며 고전 무용수의 전통복장이자 발레리나의 상징이 되었다.

튜튀의 길이는 낭만주의 발레의 등장으로 공기처럼 나풀거리는 몸짓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의 거추장스러운 의상을 발목 위까지 잘라 착용함으로써 로맨틱 튜튀가 선보이게 되었고 이후 발레리나들의 테크닉과 더 높은 도약을 보여주기 위해 점점 길이가 짧아져 무릎 위까지 짧은 클래식 튜튀가 나오게 되었다.<그림 2>는 발레의 역사에 따른 발레의상의 변천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양한 의상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림 1> (좌)클래식 튀튀, 「발레이야기」, p. 285.
(우)로맨틱 튀튀, 「즐거워라 발레」, p.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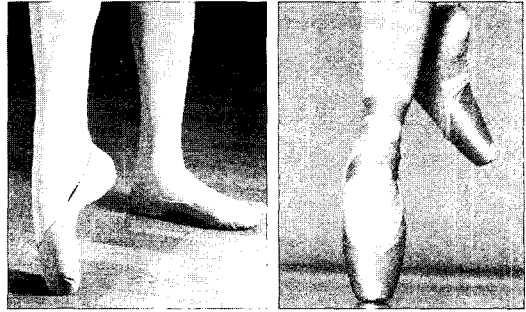


<그림 2> 발레의상의 변천사, 「발레이야기」, pp. 26-27.

또 발레에서 기본적인 몸풀기 단계인 클래스에서 착용하는 레오타드(Leotard)와 연습용 랩 스커트, 연습용 튀튀, 발목 보호를 위한 발목 워머 등이 있다.

발레 슈즈는 무용가들의 기본 신발인 슈즈와 여성 무용가가 고전발레를 할 때 주로 신는 토슈즈(Toe shoes), 특별한 성격의 배역일 경우 배역의 성격에 맞춘 캐릭터 슈즈(Character shoes), 그리고 재즈 발레나 현대발레에서 신는 재즈화(Jazz shoes)가 있다.

발레리나들이 클래스에서 착용하는 기본적인 발레 신발인 발레슈즈는 땀을 잘 흡수하는 면 소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바닥에 두터운 인조가죽을 대어 바닥이 쉽게 닳는 것을 방지한다. 토슈즈는 신발의 끝 부분이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용수들이 발끝으로서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때 발이 균형을 잡고 버틸 수 있도록 두 개의 끈을 발등 위로 십자형으로 가로질러 매게 되어있다.²⁰⁾ <그림 3>



<그림 3> (좌) 발레슈즈, (우)토슈즈

Ⅲ. 현대패션에 표현된 발레리나 룩의 조형성

1. 형태

발레의상의 전형적인 형태는 뷔스티에와 스커트로 이루어진 튀튀의 형식으로 실루엣을 결정짓는 변화 요인은 어깨, 허리, 햄 라인 등으로 각 부분의 길이, 폭, 넓이의 변화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며 이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중요요인이 된다.

그러나 발레의상의 실루엣은 무용수의 동작에 의한 고유한 선의 형태적 변화나 의미가 달라지지 않고 실루엣 유형의 이미지를 그대로 전달 할 수 있기 때문에 작품의 성격과 무용수의 역할에 맞는 유형의 실루엣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²¹⁾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현대패션에서 나타나는 발레리나 룩의 형태는 로맨틱 튀튀나 클래식 튀튀와 유사한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거나 연습용 튀튀 스커트를 이용하여 발레리나 룩의 형태를 특징짓고 있다. 그리고 발레의상의 인위적인 실루엣과 구조선을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인체선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일상복 형태에서 보여지는 생명력 있는 인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는 짧은 클래식 튀튀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작품으로 스커트 부분의 깃털과 나부끼는 어깨 끈은 전체적인 형태의 움직임은 강조하고 있으며, <그림 5>는 로맨틱 튀튀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그림 6, 7> 역시 클래식 튀튀와 로맨틱 튀튀의 스커트 부분과 같은 형태미를 주고 있다.



<그림 4>
D-Squared 2,
2004 S/S



<그림 5> Givency,
1999 S/S



<그림 8> J. P. Gaultier,
2002 S/S



<그림 9> Chanel,
1997 S/S



<그림 6> Blugirl,
2003 S/S



<그림 7> Anna
Molinari, 1994 S/S

<그림 8>은 레오타드 형태의 작품으로 수많은 개더로 이루어진 것으로 발레의상 중 연습복인 몸에 꼭 달라붙는 레오타드를 중심으로 거대한 볼륨을 표현하고 있어 인체를 중심으로 확대된 또 하나의 인체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9>는 발레의상의 튀튀 스킷트를 변형한 것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여러 층의 햄 라인은 율동적인 효과를 더해 주며, <그림 10>은 몸에 꼭 달라붙는 뷔스티에와는 달리 부드러운 파상선을 이루며 수평적 느낌으로 펼쳐지는 스킷트 부분은 리듬감을 주면서 클래식 튀튀의 변형된 형태를 보여준다.

2. 소재

발레의상에 사용되는 소재는 20세기 이후 섬유산업의 진화와 새로운 신소재의 출현과 함께 착용성, 보존, 관리 및 미적인 측면에서 더욱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²²⁾ 소재에 따라 발레의상의 분위기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소재의 질감에 대한 이해는 작품의 의도와 무용수의 역할을



<그림 10> Paco Rabanne,
1996 S/S

이해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의상의 소재가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는 의상의 질감이 전해주는 무대 위에서의 인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²³⁾

현대패션에 나타나는 발레리나 룩의 소재는 전통적인 발레의상을 특징짓는 툄과 머슬린, 레이스 등 가볍고 비치는 소재들 뿐만 아니라 시폰, 저지, 면 등 다양한 소재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조형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은 발레의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툄과 머슬린을 이용한 작품으로 도약하는 듯한 모델의 포즈와 함께 공기보다 더 가벼운 느낌을 전해주며 움직임 때마다 물결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비치는 소재를 몸에 둘러 인체의 자유와 구속에서



<그림 11> Chanel, 1993



<그림 12> Chanel,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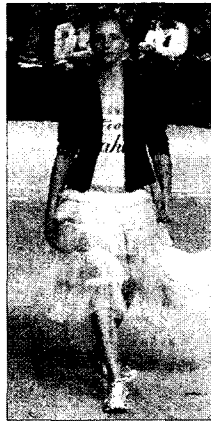
<그림 13> Versace, 2001 F/W



<그림 14> Anna Molinari, 2003 F/W



<그림 15> Alexander McQueen, 2002 S/S



<그림 16> D&G, 2002 S/S

독립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12>는 라이크라 소재의 상의와 기계주름이 잡힌 발레리나 스커트를 매치한 것으로 속이 비치듯 얇은 소재로 이루어져 있다. 신 소재의 출현과 함께 발레의상에 있어 무용수들의 움직임의 자유롭게 하기 위해 신축성 소재의 사용이 많아지게 되고, 그 결과 인체에 밀착된 라인은 아름다운 육체의 선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으며 장식선이 배제된 채상, 하의 소재의 차이만으로 자연스러운 순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3>은 발레의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톨이나 깃털 대신 실크 오간자 소재를 이용한 것으로 마치 깃털로 짠 듯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그림 14, 15, 16>의 경우 일상복 소재를 이용하여 발레리나 룩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대중문화와 이에 따른 탈 권위주의적 사상에 입각하여 먼, 울, 저지 등 일반적인 소재들이 발레의상의 아이템과 혼합되어 새로운 착장미를 나타내고 있다.

3. 색상

발레의상 디자인에 있어 색은 각각의 색이 지닌 고유의 색채감정 뿐 아니라 심리 효과를 이용하여 등장인물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한다. 또한 관객으로 하여금 무용수의 역할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색 연상작용과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 및 의도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이고 다양하면서도 독창적인 시각전달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²⁴⁾

특히 백색과 흑색의 단순성이 표현된 의상의 경우 발레의상의 형태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며 순수한 이미지로서 표현되기도 하고, 유채색의 사용은 서로가 서로를 돋보이게 하며 강한 이미지나 활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림 17>은 nude 색상을 통해 인체와 의상의 일체화로 인체가 표현하는 창조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림 18>은 트렌디 색상인 새면 핑크를 통해 여성스러운 순수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19>는 소재에 따라 보이는 순수한 백색의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어 있는데 백색은 심리적으로 활동적인 이미지와 젊은 이미지를 주며 소녀적인 순수성을 연출한다. 또한 <그림 20>에서 보이는 페일 블루와 바이올렛컬러의 낭만적인 분위기는 여성스러움을 갖게 한다.



<그림 17> Christian Dior,
2000 S/S



<그림 18>
Alberta Ferretti,
2002 S/S



<그림 19> 이정우,
2002 S/S



<그림 20>
Philosophy, 2004 S/S

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림 21>은 발레리나의 토슈즈와 같은 형태의 실크 크레이프 소재의 힐에 발목 리본 장식을 하여 발레리나 룩을 특징 짓고 있으며, <그림 22>는 발레슈즈 풍의 플랫 슈즈와 허리선을 중심으로 상하 방사선 형태로 뻗어 가는 골드 스팅글 장식의 카테일 드레스로 발레 의상의 장식적인 특성을 화려하게 가중시키고 있다.



<그림 21> Yves Saint
Laurent, 1991



<그림 22> Jenny
Peckham, 2004 F/W



<그림 23>
D&G, 2003 S/S



<그림 24>
D&G,
2002 S/S

4. 장식

장식성은 모던함과 심플함의 확일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감성으로 모더니즘이 극도의 경제적 효율성, 기하학적인 기능주의를 추구하면서 장식성을 최약으로 여길 만큼 배제시킨 것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²⁵⁾

발레리나 룩에 장식을 도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발레의상의 화려하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식적인 요소를 이용하거나 발레의상의 아이템이나 소품 등을 일상복과 혼합하여 절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장식성이

<그림 23>은 발레의상의 여러 아이템을 차용하여 일상화하고 있으며, 몸을 감싸고 있는 새틴 리본과 숏 팬츠의 리본 여밈 장식은 발레리나 룩의 특징을 보여 준다. <그림 24>는 발레 연습복의 분위기를 갖

고 있으며, 무용수들의 발목 보호를 위한 발목 위머는 장식적인 요소로서 보인다.

IV. 현대패션에 표현된 발레리나 룩의 미적 특징

III장에서 분석했던 발레리나 룩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발레리나 룩의 미적 특성을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성, 즉 환상성, 순수성, 혼성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 환상성

환상성은 자신의 경험의 세계와 허구적인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실적인 제한과 경계를 초월한 인간의 자유로운 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의 반응을 활성화하는 환상적인 사유를 이끌게 된다. 즉 자연적 세계와 초자연적인 세계로 이분하면서 두 개의 질서가 교차하는 교감적 시각의 신비적 이미지를 연출한다.²⁶⁾

20세기 초 발레 뤼스를 만든 Serge Diaghilev가 "발레야말로 그 자체가 모든 예술을 전부 포괄하는 종합예술이다"²⁷⁾ 라고 하였듯이, 무용, 음악, 의상, 무대장치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발레 공연은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다 차원 높은 환상의 경지로 인도하는 표현 예술이며 현대패션에 나타난 발레리나 룩 역시 발레의상이 갖고 있는 환상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즉 인간이 억압적이고 제한된 현실세계에서 벗어나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내면세계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픈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는 D-Squared 2의 작품으로 클래식 뒤틀의 형태미를 보이고 있다. 광택 소재로 이루어진 뷔스티에와 새틴 리본 테이프를 이용한 어깨끈, 스커트 부분은 광택 소재 위에 깃털로 장식되어 환상적이고 울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광택 소재로 이루어진 의상은 강한 표현성을 보여주며 빛의 반사를 통해 인체를 왜곡, 변형시켜 보이면서 환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림 5>는 99 S/S에 '프렌치 빌리지' 라는 테마로 정적인 쇼를 연출한 Givenchy 작품이다. 다양한 분위기의 여인들이 등장한 가운데 가발을 쓴 발레리나는 로맨틱 뒤틀을 착용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발등에서부터 리본테이프를 서로 교차하여 묶어 장식하여 토슈즈와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가발을 쓰고 하이 힐을 착용한 발레리나는 기존의 발레리나가 갖는 이미지와 다른 복합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며 또 다른 환상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8>은 J. P. Gauliter 작품으로 레오타드를 기본으로 한 얇은 시폰 소재의 드레스는 수많은 볼륨의 개더로 구성되어 거대한 케이프를 연상케 하여 환상적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허리에 묶은 검정 리본은 장식성을 더하고 있다.

Chanel의 작품인 <그림 11>은 검정 머슬린과 툴 소재로 이루어진 드레스로 몸에 꼭 끼는 뷔스티에 부분 위에는 얇은 툴로 대칭된 구조의 드레이프로 장식되어 있으며 발레 슈즈를 착용한 이 작품은 발레리나의 힘찬 도약을 느끼게 하며 발레 작품의 환상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그림 12>는 Chanel의 비주얼 광고의 한 장면으로 라이크라 소재의 상의와 비치는 소재의 긴 발레 스커트를 착용하고 발레의 한 동작을 취하는 듯 한 모델의 포즈는 발레리나의 우아하고 환상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다. 발레의상이 갖는 장식성을 배제한 채 서로 다른 성질의 소재가 갖는 이미지만으로 최대의미를 추구하며 인체의 아름다운 라인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고 있다.

Versace의 작품인 <그림 13>은 실크 오간자 소재를 이용하여 비대칭의 햄 라인으로 구성된 원피스로 풀린 울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은 층층이 깃털 장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며 크리스털 진주로 촘촘하게 장식된 툴 소재 스타킹과 함께 화려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Christian Dior의 작품인 <그림 17>은 시폰과 레이스로 이루어진 하이 웨이스트의 시스루(See-through) 드레스로 발레리나의 토슈즈를 착용하고 있으며, 발레의 한 동작을 보여주는 듯한 포즈의 연출은 날아오르는 듯한 환상적 이미지를 준다. 투명하게 비치는 소재의 질감은 신비스럽고 우아한 여성적 특성을 보이며 부드럽고 투명한 인체를 그대로 드러내어 인체

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낭만적 분위기를 보여주며, 투명한 의상 속에서 인체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이미지를 주어 잠재된 욕망을 부풀어오르게 한다.

〈그림 21〉은 Yves Saint Laurent의 작품으로 검정색 툴로 이루어진 카테일 드레스이다. 루시(Ruche)로 장식된 레그오브 머튼(Leg of mutton) 소매와 여러 겹의 러플로 장식된 칼라, 수많은 드레이프들로 구성된 드레스는 환상적인 신비감을 갖게 한다. 신비로움을 전해주는 검정 색상의 비치는 소재로 직접적인 노출이 아닌 비치는 효과를 이용한 노출로 인체의 실루엣만을 간접적으로 노출시켜 환상적 감정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환상성은 대중들이 일상적이지 않으면서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이 표현된 발레리나 룩을 통해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을 꿈꾸게 되었고 더 이상 자기 표현에 소극적이지 않은 현대인들은 대리 만족에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무대 위의 발레리나로 재탄생 시킨 것이다.

2. 순수성

현대예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순수성의 지향으로,²⁸⁾ 현대인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 상징성의 결여, 독자성의 상실, 자연성의 상실, 인간성, 개성의 상실 속에서 인간적인 것, 기계미를 벗어난 자연미를 추구하게 되었다.²⁹⁾

그래서 패션디자이너들은 좀 더 인간미 넘치던 과거의 것들에서 디자인 영감의 원천으로 삼고 있으며 그들의 아이디어는 좀 더 여성스럽고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자유로운 디자인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로맨틱시즘이란 트렌드가 인간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모습으로 현대패션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으며,³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해외 컬렉션의 공통적인 현상은 검정 색의 퇴조와 흰색상의 전면부상이라는 점으로, 이는 자연스럽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순수와 평화의 상징인 흰색이 중심 색으로 패션에 사용되기 시작했다는³¹⁾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Blugirl의 작품인 〈그림 6〉은 먼 티셔츠와 컬러풀한 튀튀 스커트를 매치하여 발랄하고 생기 넘치는 소녀적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으며, 〈그림 10〉은

Paco Rabanne의 카테일 드레스로 반짝이는 광택 소재의 뷔스티에와 층층이 수많은 러플들로 구성된 툴 소재의 스커트 부분은 클래식 튀튀를 연상시키며 로맨틱한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강렬하지 않고 투명성이 강조된 핑크 색상과 어깨를 드러내는 디자인은 자유롭고 생명력 있는 소녀적 순수성을 보여준다. Anna Molinari 작품인 〈그림 14〉는 연한 파스텔 계열의 색상과 하늘거리는 시폰 소재로 깨끗하고 섬세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페전트 시폰 블라우스에 스포티한 디자인의 탑을 레이어드하여 마치 연습용 발레리나 복장을 연상케 하고 있다.

Alberta Ferreti 작품인 〈그림 18〉에서 보여지는 핑크 색상은 사랑스럽고 평화로움을 상징하며, 귀엽고 아름다운 소녀적 순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새틴 소재 원피스에 리본 매듭을 허리에 묶어 발레리나의 율동미를 느끼게 하고 있고³²⁾ 스트래피 샌들을 착용하여 발레리나 룩의 착장미를 완성시키고 있다.

이정우의 작품인 〈그림 19〉는 몸에 꼭 끼는 조끼의 어깨부분은 작은 캡 소매를 달아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보이게 하고 있으며 마이크로 숏 팬츠 위로 비치는 소재를 이용하여 부정형의 햄 라인으로 자유로운 감성을 표출하고 있고 흰색이 주는 순수성의 이미지를 갖게 한다.

〈그림 20〉은 Philosophy 작품으로 숨털처럼 가벼운 느낌을 주는 텅커 벨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다. 시스루 소재의 원피스는 리본 매듭을 가슴 아래부터 허리선에 묶어 발레리나의 움직임의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하며 발레슈즈와 함께 발레리나 룩의 특징을 보인다.³³⁾

〈그림 22〉는 Jenny Peckham의 작품으로 발레리나를 주제로 로얄 오페라 하우스의 인조 눈으로 뒤덮인 무대에서 발레리나들의 발레동작과 같은 몸짓으로 시작된 컬렉션의 한 작품이다. 소녀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핑크 색상은 화려한 골드 장식과 꽃 장식이 된 가는 허리끈 등으로 여성스러움을 최대한 살리고 발레의상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D&G 작품인 〈그림 24〉는 크리스 크로스형으로 여미는 니트 카디건, 연습용 랩 스커트, 발목 워머 및 발레 슈즈 등 발레의상의 아이템을 일상복과 같이 조합하여 순수한 소녀적 감성을 갖게 한다.

이러한 발레리나 룩의 순수성은 현대인들에게 사

랑과 순수를 자극하는 소녀적 감성으로 나타났으며, 자연스러운 형태와 실루엣, 소녀적 취향을 표현 할 수 있는 소재들과 다양한 패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하늘거리며 비치는 소재, 화이트와 파스텔 색상으로 순수성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3. 혼성성

현대에 들어와 사회전반에 흐르는 포스트 모던 문화가 변화적이며 한계가 없고 연계적이며 개방적인 특성을 갖는다면 혼성 모방 된 패션의 재해석 역시 모방된 것으로부터 새로운 법칙과 미를 발견하거나 존재하지 않던 것을 창조해 내게 된다.³⁴⁾

또한 오늘날 공연문화의 지배적인 경향 역시 문화 장르간의 융합으로 혼합장르의 공연들이 흥행 면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특히 미술과 무용, 클래식과 뮤지컬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장르가 완전히 융합되어 제 3의 장르를 만든다는 것이 특징이다. 예술이 현실의 모방이라면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에 이런 제 3의 장르 공연들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³⁵⁾

패션에서도 웰빙(Well-being) 경향에 따라 삶의 질을 중시하게 되고 다양한 목적에 맞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성이 강조된 스타일이 선호되는 경향을 보이며,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패션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인 스포츠 웨어와 레저 문화의 확대에 의한 캐주얼화가 반영되어 자유로움과 편안

함이 가미된 착장 형태들이 제안되고 있다.

<그림 7>은 Anna Molinari 작품으로 몸에 꼭 달라 붙는 짧은 티셔츠는 시폰 소재의 긴 튜튜 스커트와 함께 조합되어 밝고 경쾌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로맨틱 튜튜가 갖는 여성적이고 우아한 이미지는 스포티한 티셔츠, 운동화와 함께 자유로운 감성을 표현하며 새로운 역동성을 갖게 한다. 스포츠 웨어가 원래 지니고 있던 활동성과 기능성이 새로운 시대의 패션을 이끌어 가는 필수적인 화두로 등장하고 있으며,³⁶⁾ 여성의 미를 정숙함보다는 실용주의에 뿌리를 둔 활동성에서 찾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9>는 Chanel 작품으로 둥근 햄 라인으로 처리된 짧은 블레로는 비 정형화 된 툴 소재의 티어드 스커트와 함께 연출되고 머리 위의 깃털 장식은 발레리나의 율동미와 함께 이국적인 정취를 갖게 하고 있다.

<그림 15>에서 보이는 Alexander Mcqueen의 작품은 시가렛 팬츠(Cigarette pants)와 화이트 셔츠의 변형으로 짧은 클래식 튜튜를 연상시키고 있으며 그 로테스크한 메이크업은 아방가르드 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짧은 클래식 튜튜의 실루엣을 이용하여 튜튜의 이미지만을 간직한 채 중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단순한 외적이미지 뿐만 아니라 기능성과 표현성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림 16>은 D&G 작품으로 튜튜를 변형한 짧은 러플 스커트는 저지 티셔츠, 베스트와 함께 조합되어 발레의 드라마틱함이 상상력을 자극시키면서 스포티

<표 1> 현대패션에 표현된 발레리나 특의 미적 특성

구분	환상성	순수성	혼성성
미적 특성	· 화려하고 낭만적 감정의 표현	· 여성적, 소녀적 이미지	· 자유로운 감성 · 일상성 · 다목적성
형태	· 발레의상인 로맨틱, 클래식 튜튜의 형태 · 노출, 밀착에 의해 인체의 라인이 드러나는 실루엣	· 슬림한 시스 실루엣 · 자연스러운 형태와 실루엣	· 제한이 없는 형태 · 일상복과 발레의상의 혼성적 형태
소재	실크, 시폰, 오간자, 툴, 레이스, 실크 새틴, 머슬린, 라이크라	니트, 광택소재, 면, 툴 시폰,	저지, 데님, 시폰, 면, 툴
색상	흰색, 검정, nude 색상, 메탈 색상	파스텔 색상, 핑크, 흰색, 베이지	다양한 색상
장식	깃털장식, 새틴 리본 테이프, 러플, 개더, 드레이프, 토슈즈와 발레슈즈	러플, 개더, 드레이프, 리본 장식, 스팽글, 발레 슈즈, 발목 위머	리본테이프, 러플, 운동화

한 스타일로 연출되었다.

〈그림 23〉은 D&G 작품으로 2002 S/S에 컬렉션의 런 웨이(Run way)를 마치 발레 리허설 장으로 꾸몄고 무대에 어울리는 발레리나 스타일을 평키하게 연출하였다. 새틴 리본이 크로스 된 카디건, 보디 컨셔스, 발목을 덮는 워머, 데님 소재의 짧은 마이크로 팬츠는 새틴 리본으로 묶는 여밈 처리되어 신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유도하면서 발레의상과 스포츠 웨어의 혼성물로서 패션에 있어 혼합 장르의 한 단면을 보여주며, 슈즈 역시 발레리나 펌프스 룩으로 연출되었다.

이상과 같이 발레리나 룩은 자유로운 감성을 토대로 발레의상과 일상복의 절충으로 혼성적인 특징을 보이며 역동적인 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상 속의 낭만과 활동적인 것의 조화 등 다양한 접촉과 자극의 방법으로 새로운 시대에 자유롭게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여 현대패션에서 새로운 트렌드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V. 결론

인간이 주체가 되며 보다 차원 높은 상상의 경지로 인도하는 표현예술인 발레에서 의상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수단이며 시각적 예술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의 현대인들은 발레리나 룩과 같은 낭만적인 트렌드를 통해 인간 본연의 자연스럽고 순수한 감성을 되찾고 싶은 감정을 반영하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의 경향을 보여주는 현대패션에 표현된 발레리나 룩의 조형성과 미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형태는 발레의상의 형태를 기본으로 노출, 밀착에 의해 인체 라인을 드러내거나, 자연스러운 실루엣, 또는 일상복의 형태에 발레의상의 아이템을 합하여 발레리나 룩의 형태를 결정 짓고 있다.

소재는 실크, 시폰, 툴, 레이스, 오간자 등 발레의상에 환상적 분위기를 제공하는 주 소재와 함께 다양한 일상복의 소재도 함께 사용되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냄과 동시에 발레리나 룩의 조형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색채는 흰색과 검정을 기본으로 누드 색상, 파스

텔 색상 등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었으며, 장식은 러플과 드레이프, 개더 등을 기본으로 발레의상을 특징짓는 토슈즈나 리본 테이프, 발목 워머 등이 사용되어 졌다.

이러한 조형적 특성을 고찰한 결과 현대패션에서 표현되는 발레리나 룩은 환상성, 순수성, 혼성성의 미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환상성은 현실적인 제한과 경계를 초월한 인간의 자유로운 의식으로 의식과 무의식의 반응을 활성화하는 환상적인 사유를 이끌게 된다. 무용, 음악, 의상, 무대장치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발레 공연은 보다 차원 높은 환상의 경지로 인도하면서 이러한 이미지는 현대패션에서 역시 발레리나 룩을 통해 환상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즉 인간이 억압적이고 제한된 현실세계에서 벗어나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내면세계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픈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리만족 뿐 아니라 스스로를 무대 위의 발레리나로 재창조하고 있다.

둘째, 순수성은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 자연성, 인간성, 개성의 상실 속에서 인간적인 것, 기계미를 벗어난 순수미를 추구하게 된 현대인들에게 로맨틱시즘이란 트렌드가 인간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발레리나 룩의 여성스럽고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자유로운 디자인이 소녀적 취향의 소재와 색상들과 함께 순수성의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셋째, 혼성성으로 다양한 목적에 맞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성이 강조된 스타일이 선호되는 경향을 보이며, 발레리나 룩 역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패션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인 스포츠 룩이 반영되어 로맨틱한 여성스러움은 자유로움과 편안함이 가미된 형태들로 표현되고 있어 현대패션에서 새로운 트렌드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분석한 발레리나 룩의 특성들은 한번쯤 발레리나가 되고 싶은 여성들의 꿈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공연문화의 활성화가 현대패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찾는 순수의 본능이 감성적으로 재창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무대의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더 나아가 현대패션에서 다양한 스타일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1) 제레멘느 프뤼도모, 양선희 역 (1995). *무용의 역사*1. 서울 : 삼신각, p. 18.
- 2) 김현숙 (1995). *무대의상 디자인의 세계*. 서울 : 고려원, p. 25.
- 3) 김수진 (2003). *현대무용의상의 조형성 연구*. 숙명여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
- 4) 김경희, 이순홍 (1999). *무용예술의상에 관한 연구*. 복식, 47.
 김수진 (2003). *현대무용의상의 조형성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은 (1993). *무용의상의 효과적인 표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여정, 이경희 (2003). *무용의상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한국창작무용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7(3/4).
 윤여정 (2002). *무용의상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성은 (2001). *발레역사에 따른 의상변천에 관한 고찰*.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숙 (1996). *발레의상에 대한 연구-로맨틱발레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4(3).
 이혜주 (1998). *현대무용의상에 나타난 자연주의, 원시주의, 해체주의, 표현양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상임, 김경희 (2003). *중세무용의상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53(1).
 정옥임, 김경희 (2002). *피카소의 입체주의적 작품에 나타난 무용의상에 관한 연구*. 복식, 52(3).
 정옥임, 김경희 (2002). *중중무용의상에 관한 연구*. 복식, 52(7).
 정삼호, 이은규, 이현정, 서지성 (2003). *현대무용 「아듀 1999」의 무용의상디자인*. 복식, 53(7).
- 5) 잭 앤더슨, 서진은, 허영일 옮김 (1998). *발레, 현대무용*. 서울 : 삶과 꿈, p. 28.
- 6) 이은경 (2001). *발레이야기*. 서울 : 열화당, p. 13.
- 7) 김정자 (1982). *무용개론*. 서울 : 보진재, p. 193.
- 8) 잭 앤더슨. *앞의 책*, pp. 40-41.
- 9) 위의 책, p. 47.
- 10) 국립발레단 (2001). *즐거워라 발레*. 서울 : 범조사, pp. 29-30.
- 11) 잭 앤더슨. *앞의 책*, p. 73.
- 12) 국립발레단. *앞의 책*, p. 30.
- 13) 잭 앤더슨. *앞의 책*, p. 75.
- 14) 위의 책, p. 95.
- 15) 위의 책, p. 106.
- 16) 문애령 편저 (2000). *서양무용사*. 서울 : 눈빛, p. 33.
- 17) 국립발레단. *앞의 책*, p. 40.
- 18) 잭 앤더슨. *앞의 책*, p. 155.
- 19) 이은경. *앞의 책*, p. 125.
- 20) 국립발레단. *앞의 책*, p. 56.
- 21) 윤여정 (2002). *무용의상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
- 22) 김선영, 최영순, 이병홍 (2000). *국내 시판 튀튀의 구성 실태조사*. 복식, 53(6), p. 67.
- 23) 김수진. *앞의 책*, p. 7.
- 24) 윤여정. *앞의 책*, p. 9.
- 25) 최해주, 안은경 (2003).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53(2), p. 148.
- 26) 김현수, 양숙희 (2004). *디지털시대 패션에 나타난 사이버페미니즘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2), p. 205.
- 27) 국립발레단. *앞의 책*, p. 34.
- 28) 김수진. *앞의 책*, p. 54.
- 29) 최해주, 안은경. *앞의 책*, p. 147.
- 30) 이효진 (2003). *21세기 로맨틱시즘, 걸리쉬 패션*. 복식, 53(7), p. 112.
- 31) 위의 책, p. 117.
- 32) *Harper's Bazaar*. 2002. 7. p. 66.
- 33) 위의 책, p. 66.
- 34) 진경옥, 박민여 (2000). *포스트모던패션에 표현된 혼성 모방*. 복식, 50(5), p. 153.
- 35) *조선일보*. 2003. 5. 15.
- 36) 최해정, 임영자 (2001). *20세기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51(2), p. 1.